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무주군, 대기환경 개선 위해 올해 약 10억원 투입 민간부문 50대 대상

무주군이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약 1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50대(승용 20대, 화물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최초 공고일(3월 11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또는 예

산 소진 시)까지다.

출고 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까지 7억원 정도 사업비를 소모해 전기자동차 38대를 보급,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게시판 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을 참고하거나 무주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 배출오염 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운행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현황은 총 38대에 이르며 충전소는 총 12개소(2021년 최대 9개소 추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산림조합, 선도경영단지 5년 연속 한국산림인증 획득

### 산림관리 체계적 수행·임산물 전 과정 관리 소비자 전달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5년 연속 산림경영인증(FM)을 획득하였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산림경영(FM)인증과 임산물 생산, 유통 인증으로 산림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며 입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며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선도산림경영단지(1,424ha)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고로쇠, 두릅나무 등)에 대한 산림인증제도를 통해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리되며 산림인증마크와 함께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만8,843ha으로 국토 면적의 총 64%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국 산림 면적에 82%정도가 사라진다. 환경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산림인증제를 바로 알고 산림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해석 조합장은 "선도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산주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산주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안전한 산림, 진안군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제3기 마을해설사 양성

진안군은 18일 마이산 에코타운에서 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3기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 마을조사, 마을생태해설 및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구성 및 실전스피치 등 마을해설사로써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마을해설사는 마을만들기 학습과 체험학습 등을 위해 진안군을 찾는 방문객과 학생들에게 마을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

무주군이 18일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을 열고 본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시민이 무주에 귀농·귀촌을 위한 첫 걸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이 늘어나면서 16세대가 신청해 최종 10세대가 선발됐다.

교육생은 11월까지 초보 농업인으로서의 기초농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을 위한 토지, 주택 구입에 필요한 토지법률, 주택 리모델링 노하우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무주군 안성면 병명리로 소재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

활동과 개인텃밭,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매년 입교생들과 재배한 배추, 무, 표고버섯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따뜻한 무주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영농 재배 실습과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주택 50㎡, 텃밭 33㎡ 내외 규모가 보증금 60만원에 월 25만원이며 주택 33㎡, 텃밭 33㎡ 규모는 보증금 40만원에 월 20만원이다. 세대별 통과금은 개별 부담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18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단장 이승제)과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이사 임희준)와 홍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장수한우 홍콩 수출 활성화 '맞손'

### 장수군-장수한우지방공사-한우수출연구사업단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 업무협약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18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단장 이승제)과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이사 임희준)와 홍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수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장영수 군수와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장수군 농축산유통과장 및 홍콩 바이어, 한우수출연구사업단, 한국연구재단 조영철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장수한우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장수한우 브랜드육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장수군 548정책의 사

(4)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과 팔(8) 걱정 없는 안심농업을 실현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도 싶은 장수 농특산물, 팔 걱정 없는 장수한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힘을 예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고품질 장수한우의 번식기반 조성, 다양한 유통채널 개발, 한우 가공식품의 개발 등을 통한 한우산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힘쓸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자녀 건강한 성장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안군은 1분기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열렸으며 1회 2시간씩 총 4회 40여명(1회 10명 참여)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많은 부모들의 참여를 위해 저녁시간을 이용한 교육시간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은 '부모·자녀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지도'라는 주제로 글로벌리더코칭센터 강경숙 대표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강 대표는 강의에서 각자 성격에 맞는 의사소통방법과 학습코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의 역할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우리아이 성격유형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법과 소통방법 알아가기 등의 주제 강의를 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좀 더 일찍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오늘 받은 교육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군에서도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발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전북지역 암관리 건강검진사업 평가 최우수

진안군이 전북지역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평가내용은 만 20세~69세 암검진 수검률(44.5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43.06%), 영유아검진(100%), 암관련 우수사례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북평균 64점보다 훨씬 높은 89.4점을 맞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역 특성상 초고령화 및 검진정보와 인식부족, 관의 이동검진차량 불화로 인하여 타시군에 비해 수검률이 매우 저조할 것이 예상되는 약조건에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검진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방문사업과 병행하여 혈압, 혈당체크 및 상담 후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병원까지 동행하여 한분이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펼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예방은 물론 만성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질 높은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무주군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팀(063-320-2539)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로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